

**** 선교교회에 처음 나오신 형제 자매들을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. ****

- **추수감사주일:** 다음 주일 14시 연합예배, 성찬식
- **예배당 진입문 변경:** 다음 주일부터는 예배 시작 5분 전에 강대상 쪽 출입문 닫고, 반대편 쪽 정문으로만 출입합니다.
- **가족 토요기도회:** 매월 첫째 토요일 7시 믿음방(금주 토요일이 그 첫 날입니다)
- **네팔 대홍수 피해 이웃 돕기 헌금:** 오늘까지('네팔'이라 표기해 주세요)
- **매일성경 / 주차권 받아가세요:** 김성희 / 우선화
- **라합3나라 모임:** 10월 1일(목) 9시 백수정 님 가정
- **지난 주 방문:** 강현기-정선경, 임지웅-박은정
- **출타:** 김학순, 정기승-신일수, 한상철-김영희
- **졸업:** 김태희(로버트 슈만 음악대학 최고연주자 과정)
- **생일:** 조재호, 김학순, 김종현
- **8대 담임목사 청빙위원회 구성 및 인준을 위한 공동의회:** 11월 22일 주일 장로, 여성 은퇴자, 안수집사, 권사, 남선교회, 여선교회, 교회학교 대표 각 1인(총 7인 위원회)

◆말씀일기 일정

일/삿12:1-15 월/삿13:1-14 화/삿13:15-25 수/삿14:1-20
목/삿15:1-20 금/삿16:1-14 토/삿16:15-31 일/삿17:1-13

◆114 운동-하루(1) 한번(1) 말씀일기 & 성경 (4)장 통독
성경 300독 대행진: 289독

◆예배위원 안내◆

	9월 27일	10월 4일	10월 11일	10월 18일
예배기도	석혜진	추수감사주일	채해웅	백윤정
안내위원	예배부			
봉헌위원	박성희 배진우	김대진 임나원		
애찬위원	밥상 일곱	밥상 여덟	밥상 하나	밥상 둘



“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”(요 15:9)



주일예배 11:45 Teestube 소망방
14:00 Mutterhauskirche
유초등부 14:00 Teestube 평화방
청소년부 14:00 Teestube 믿음방
청년부 15:30 Teestube 믿음방

토요기도회 07:00 Teestube 믿음방



담임/ 손교훈 목사 Pfr. Dr. Kyo-Hoon Sohn
☎ 02131-5249 186 HP. 0176-5779 1004
교육/ 이동훈 목사 HP. 01525-2367 629
교육/ 박승은 목사 HP. 0157-3845 5550
선교협력/ 이광열 목사 HP. 0157-7388 7498

1983년 5월 8일 창립

뒤셀도르프선교교회

교회 홈페이지 duemission.de

교회당 주소 Alte-Landstr. 179, 40489 Düsseldorf

주 일 예 배

인도: 손교훈 목사

※입례송/Eingangslied	왕이신 나의 하나님	다 함 께
※예배부름/Eingangsgebet		인 도 자
※찬송/Gemeindelied	3장	다 함 께
※신앙고백/Glaubensbekenntnis		다 함 께
성시교독/Wechselwort	교독문 81번	다 함 께
찬송/Gemeindelied	294장	다 함 께
기도/Gebet		석혜진 집사
찬양/Chor	논밭에 오곡백과	찬 양 대
성경봉독/Text zur Predigt	사사기 12:1-15	인 도 자
설교/Predigt	이겼지만	손교훈 목사
찬송/Gemeindelied.....	220장	다 함 께
봉헌/Kollekte.....		다 함 께
교제/Bekanntmachung.....		다 함 께
※주기도송/Vaterunser.....		다 함 께
※축도/Segen		손교훈 목사

※ 표는 일어섭니다.

교회 구좌

Ev. Presbyterianische Missionskirchengemeinde e.V.

Bank: Stadtparkasse Düsseldorf

IBAN: DE61 3005 0110 1008 4019 01 일반계좌

IBAN: DE49 3005 0110 3007 9500 29 선교관계좌

▶손교훈 목사의 말씀일기 사사기 10:1-18 ‘아픈 사랑’◀

‘이스라엘 바보’이신 여호와 하나님은 너무나 아픈 사랑을 하신다. 하나님의 사랑은 그냥 큰 사랑, 혹은 위대한 사랑, 이런 식으로 표현하기에는 많이 부족하다. 그 분의 사랑은 사랑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기괴한 사랑,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이다.

이스라엘은 바람이 나서, 여호와께 등돌리고 각양 종다는 신들과 다 놀아난다(6). 여호와와는 진노하시고, 블레셋, 암몬 족속들을 통해 이스라엘을 힘들게 만드신다. 고통스러워진 이스라엘은 또 다시 여호와께 매달려 보지만, 이제는 하나님도 단호하시다. “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.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...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”(13-14). 그래도 이스라엘은 여호와께 어떻게든 구원해 달라고 매달린다.

바보 하나님은 철없는 이스라엘 때문에 그렇게도 아프셨으면서, 그래서 다시는 사랑 않겠노라 큰 소리치셨으면서, 이제 그들이 이방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뭔가 좀 액션을 취한다고, 이스라엘의 곤고함을 보며 또 마음 아파하신다(16). “사랑하련다. 아무런 상처도 받지 않았던 것처럼...” 완전 그 자세이시다. 위메, 징혀. 짜증나는 이스라엘, 답답한 하나님 때문에 내가 다 화가 난다. 하지만, 어쩌랴, 그 짜증나는 이스라엘이 바로 ‘나’인 것을.

이 사랑에 대한 응답은, 바보 하나님이 자꾸 더 마음 아프시지 않도록 그 분만 바라 보는 것 하나요, 또 하나는 그 ‘십자가’ 사랑처럼 나도 사랑하는 것. 그런데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나, 그 사랑 실천하며 “그리스도의 남은 고난”(골1:24)에 동참하는 것이나, 어느 것 하나 쉬운 일이 없으니, 그게 진짜 답답한 거다.

주여, 그래도, 아무리 답답하고 힘들어도, 그 아픈 사랑, 그것만이 살 길이겠지요? 오늘도 내 안에서, 또한 나를 감싸 안은 채 뛰고 계신 당신의 사랑의 심장 소리를 듣고 있는데, 어찌 달리 피한단 말입니까!

▶지난 주 봉헌 내역(9월 20일-9월 26일)◀

십일조	월정헌금	감사헌금	목적헌금(네팔)
김수경, 이재완, 손교훈, 김평님, 정기승	김영수, 양순이	양귀남(아들취임), 한상철(생일), 무명	서민규, 한상철, 조경숙, 강일규, 김한진, 무명2
총액 2.267,00유로 = 1.817,00(예배당) + 450,00(온라인)			